2018. 2. 22. (목) 언론보도

기호일보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016면 사람

道-스위스 DMZ 지속가능한 개발 한뜻

장 자크 요스 한-스위스 협회장 파주 방문
캠프 그리브스서 사진전 개최 등 협력 논의

장 자크 요스 한국-스위스 협회장이 지난 20일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기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와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간 DMZ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자크 요스 협회장은 스위스군 예비역 소장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 동안 실제 한반도 DMZ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단 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DMZ 전문가이다.

이 자리에는 장 자크 요스 한-스위스 협회장,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또 캠프 그리브스 문화전시와 연계한 DMZ-NNSC 사진전 개최 등 양측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나눴다.

도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경기도-스위스 간 협력 체계를 다지고, 연차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현재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DMZ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은 "경기도-스위스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보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